

서계 김담수 문학에 나타난 ‘가족’과 그 의미

정 우 락*

- I. 머리말
- II. 전쟁으로 인한 고향 상실
- III. 가족을 향한 김담수의 마음
 - 1. 慈親에 대한 간절한 효심
 - 2. 思鄉과 思母 정서의 결합
 - 3. 長子에 대한 각별한 父情
 - 4. 諸子에 대한 교감과 당부
- IV. 가족 사랑의 사회적 의미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김담수의 문학을 중심으로 그가 ‘가족’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한 것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김담수는 가솔을 이끌고 가야산으로 피란을 하였고, 정유재란 이후에는 안동과 상주 등지를 떠돌게 된다. 김담수의 가족 사랑과 귀향 의지는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 산출된 것이다. 가족을 향한 김담수의 마음은 크게 넷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효심, 思鄉과 思母 정서의 결합, 長子에 대한 각별한 부정, 여러 아들에 대한 정서적 교감과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jwl0412@knu.ac.kr

당부가 그것이다.

유교적 세계관에서 ‘家-國-天下’는 근본적으로 상통한다. 이 때문에 김담수 문학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를 사회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그 스스로 만아들 정룡에게 고을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修己라 하였고, 그의 작품에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자식에 대한 자애가 선순환구조로 나타난다. 차운시를 주고받으며 자식들과 문학작정서적 교감을 이룩해 나가기도 한다. 우리는 여기서 가정에서의 孝悌가 仁의 사회적 확산이며, 가족 사랑이 또한 험난한 사회를 극복해나가는 내적 에너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 주제어

서계 김담수, 가족, 임진왜란, 전쟁체험, 귀향의지, 유교적 세계관, 효도, 자애, 선순환구조

I. 머리말

金聘壽(西溪, 1535-1603)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대한 전쟁체험을 그의 문학세계에 고스란히 담아 두었다. 이를 인식하면서 필자는 「서계 김담수의 전쟁체험과 그 문학적 대응」이라는 논고에서 그의 전쟁체험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가를 밝힌 바 있다.¹⁾ 이 논의에서 필자는 김담수의 문학이 성리학적 사변성 혹은 낭만적 걱정애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정직한 눈으로 관찰하는 현실주의적 세계관에 기반해 있다고 했다.

본 논의는 김담수의 문학에 나타난 핵심 소재인 '가족'에 집중한다. 전쟁으로 인해 가족이 더욱 새롭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향의 상실과 가족의 이산을 초래하는 전쟁, 이로 인해 사향의식과 가족애는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김담수는 '재앙의 기운이 하늘에 뻗혀 온 나라에 가득하다.'²⁾라고 하면서 당대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과 피를 나눈 '가족'은 더욱 중요한 존재로 부각되지 않을 수 없었다. 宋遠器(亞軒, 1548-1615)는 만사를 통해 김담수를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鄒山孕粹降斯人	가야산 뻗어난 기운 품어 이 사람 태어났으니
孝友慈詳會一身	효우와 자상함이 한 몸에 모여 있었다네
老斑每向春輝舞	노래자의 효성으로 언제나 봄별에 춤추었고
姜被時從棣萼親	姜肱처럼 한 이불로 자면서 형제간에 친하였네
經濟手宜調鼎鼐	경제의 솜씨는 술 안의 음식을 조리하듯 마땅히 하였고
隱淪心合理絲綸	은둔하는 마음은 낚시줄을 다스리듯 알맞게 하였네

1) 정우락, 「서계 김담수의 전쟁체험과 그 문학적 대응」, 『영남학』 10,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6.

2) 金聘壽, <亂離吟>, 『西溪先生逸稿』 卷1, “氛氣亘天遍域中, 中夜獨嘆王事.” 『西溪先生逸稿』는 이하 『西溪集』으로 간단히 표기한다.

福基已固多來享 복의 터전 이미 단단하여 그 복 많이도 누리셨고
玉樹前頭桂影新 옥수의 앞머리에 계수나무 그림자 새롭구나³⁾

송원기는 김담수의 생애 전반을 만사를 통해 두루 묘사하였다. 수련에서는 고향과 가족애를 제시하였고, 함련에서는 가족애를 효성과 우애, 그리고 자애로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경련에서는 출처와 관련한 치국과 수신의 문제를, 미련에서는 남아 있는 그의 자손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얼핏 보면 죽은 자에 대한 피상적인 찬사로 보인다. 그러나 찬찬히 살펴보면 수신을 기반으로 한 제가, 즉 가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로는 부모, 옆으로는 형제, 아래로는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⁴⁾ 그의 가족에 대한 정서가 따뜻하게 닿아 있다. 이는 김담수의 생애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요약할 수 없는 부분이다.

南必錫(1738-?)은 김담수의 학맥이 영남에서 뚜렷하다고 하면서⁵⁾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한 바 있다. “산해의 연원으로 덕계와 금계의 의발이요, 동강 및 한강과 교유하여 또한 잘못을 바로 잡았네. 노년까지 절차탁마한 이는 일휴당과 설월당이었네.”⁶⁾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김담수의 부친 金關石(四友堂, 1505-1542)을 통한 가학을 시작으로 하여, 한강 정구와 동강 김우옹을 의미하는 ‘兩岡’, 덕계 오건과 금계 황준량을 의미하는 ‘二溪’, 남명 조식과 퇴계 이황의 제자들을 두루 언급하면서, 남필석은 김담수의 학문에 영남의 학맥이 뚜렷하게 흐르고 있음을 보였다.

사실 김담수는, 조식이 그를 襟宇灑落으로 평하며 수양적 성취를 극찬하였고, 이황의 제자들과 어울려 강론하면서 도산의 지결을 이어받았다고 하니 그의 학맥은 영남학파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정구가 그의

3) 宋遠器, <輓詞>, 『西溪集』 卷3.

4) 미련의 ‘옥수’와 ‘계영’은 훌륭한 자손을 의미한다.

5) 南必錫, <奉安文>, 『西溪集』 卷3, “猗歟先生, 挺出南脈.”

6) 南必錫, <奉安文>, 『西溪集』 卷3, “山海淵源, 吳黃衣鉢, 周旋兩岡, 亦資櫟括. 琢磨桑榆, 日休雪月.” 여기서의 ‘오황’은 오건과 황준량, ‘양강’은 한강 정구와 동강 김우옹, ‘일휴’는 금응협, ‘설월’은 김부륵을 의미한다.

만사에서 “도의가 높아 크게 존경을 받았다.”⁷⁾라고 하고 있으니 그의 학문적 성취 역시 두루 인정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조용인은 ‘학문의 근원을 주자학에서 세웠다.’⁸⁾라고 하였으니, 김담수의 학문 성향과 역량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부분을 짐작할 수 있다.

김담수에 대한 제가의 논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학문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계집』에 갈무리되어 있는 작품은 詩가 94제 127수, 書가 16편, 序가 1편, 疑가 1편이며,⁹⁾ 그것도 대부분 만년의 것이다. 본 논의는 이러한 자료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출발하기로 한다. 특히 김담수 문학에 나타난 핵심 주제인 ‘가족애’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이와 관련된 김담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로 한다.

김담수 문학에 나타난 가족을 향한 마음에는 사랑의 선순환구조가 발견된다. 치사랑인 효도와 내리사랑인 자애가 서로 순환하면서 가족애의 핵심적 요소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임진왜란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이것은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김담수 문학에 나타나는 이러한 사랑의 선순환구조는 가족해체라는 우리 시대의 가족 문제와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점이 많다. 바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본고에서는 김담수가 문학을 통해 그리려고 했던 가족의 사회적 의미도 함께 짚어보기로 한다.

II. 전쟁으로 인한 고향 상실

김담수는 1535년(중종 30) 지금의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수륜리에서 태어났다. 고려 초에 신라의 왕자인 金錫이 의성의 채지를 받아 그의 세계가

7) 鄭述, <挽金台叟>, 『寒岡續集』 卷7, “道義推先重, 艱危人事違.”

8) 曹挺立, <西溪金公挽詞>, 『梧溪集』 卷1, “學繼朱源立, 文成禁臠珍.”

9) 시는 타인이 지은 원운 3수가 더 실려 있고, 書는 김부륜에게 보낸 2편을 비롯해서, 맏아들 정룡에게 보낸 것이 12편, 넷째 廷契과 막내 廷堅에게 보낸 것이 각 1편이다.

여기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그로부터 7세로 내려와 군수이자 贈兵曹判書 之銳가 성주에 있는 密直副使 李百年의 따님에게 장가를 들면서 비로소 그의 자손들이 성주에 터를 잡고 살게 되었다. 아버지 將仕郎 關石이 순천 박씨 처사 垣의 따님에게 장가들면서, 그는 외가에서 셋째 아들로 출생하게 된다. 때는 음력 1535년 10월 10일이었다.

김담수의 나이 8세에 아버지 김관석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이 37세였다. 이 때문에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고향 성주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창녕인 曹夢吉의 따님에게 장가를 들어 아들 5명과 딸 2명을 슬하에 거느리기도 했다. 그는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과거공부에 잠심하여 1564년(명종 19)에 사마시에 합격하기도 하였으나, 잦은 병으로 마침내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과거공부를 그만 둔 후의 김담수 모습을 李象靖(大山, 1711-1781)은 <행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날마다 문을 닫고 고요히 지내면서 경전공부에 잠심하였으니, 비록 처자식이라 하더라도 게으른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 길을 갈 때에는 개밋득이라도 반드시 피하였고, 용변을 보러 갈 때라도 어린 종이 다 먹기를 반드시 기다려 주었다. 어릴 때 『소학』에서 느낀 바가 있어서 자신의 주장을 양보하고 겸손하였으며 생각을 삼가서 남에게 낮추었다.¹⁰⁾

위의 지문을 통해 우리는 과거 포기 이후의 김담수가 어떤 생활을 하였으며, 그의 기본적인 자질과 품성이 또한 어떠하였던가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소학』을 바탕으로 한 경전공부에 대한 잠심, 집안에서의 단엄한 모습, 타인에 대한 깊은 배려심, 자기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는 성품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행장> 등에 으레 사용되는 관용적인 수사가 아니다. 그의 문집 행간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文氣를 통해 이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정은 이를 두고 “辭氣溫雅”와 “有德之言”¹¹⁾으로 요

10) 李象靖, <行狀> (『西溪集』 卷3), “日杜門靜處, 潛心經傳, 雖妻子, 不見其惰容行, 步必避蟻封, 便旋必俟童僕食畢也, 幼時因讀小學, 有所感發, 折節爲謙, 謹思以下人.”

약하기도 했다.

가난하였지만 고향에서 단란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김담수, 그러나 전쟁은 이러한 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 갔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가야산으로 피신하였다. 가야산으로 들어가기 직전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 “나는 내일 새벽에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산에 오르려고 하는데 끝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부자와 형제가 각각 남북으로 흩어져 난을 피하고 있으니 참으로 염려스럽다.”¹²⁾라 한 것이 그것이다. 이처럼 김담수의 단란한 가족 공동체는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고 말았던 것이다.

정유재란이 일어난 다음해인 1598년(선조 26) 봄에 김담수는 맏아들이 수령으로 있는 예안현으로 피란을 갔다. 당시 그는 “흉적들이 방자하고 악독하게도 陝川과 靈山, 그리고 居昌 세 곳에 출몰하고 있어 사람들이 뜻을 굳게 가지지 못하고, 짐을 지고 서서 하루에 서너 번씩 놀라고 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참으로 슬프다. 江左로 피란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친척과 분묘를 떠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구나.”¹³⁾라고 하면서 피란을 주저하였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안동 지역으로 피란을 단행하여 아들 곁으로 가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하여 그는 <宣城雜詠序>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무술년(1598) 3월 초순에 나는 왜구의 난리 때문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아이들을 이끌고 선성에 와서 잠시 살았다. 선성은 맏아들이 수령으로 있는 고을이다. 자식이 수령으로 있는데 아버지가 그 고을에 사는 것은 나라의 법이 아니므로 마침내 花山府 臨河縣 北村 鼎井里로 옮겨 살았다. 어머니

11) 李象靖, <西溪金公逸稿序>, 『大山集』 卷44, “公不喜著述, 只有詩札若干篇, 僅存於爛脫之餘, 而辭氣溫雅, 藹乎有德之言也.”

12) 金聘壽, <答子廷龍>, 『西溪集』 卷2, “吾則明旦陪老親上 鄒山, 未知畢竟之如何? 父子兄弟, 各在南北而避患, 尤可悶也.”

13) 金聘壽, <答子廷龍>, 『西溪集』 卷2, “但兇賊肆虐出沒, 陝靈居三之地, 人無固志, 荷擔而立以至一日三四驚, 人生斯世, 良可哀矣. 避亂江左, 曾是上計, 而離親戚棄墳墓, 實痛于懷, 茲未決焉.”

뵈기가 편리했기 때문이다.¹⁴⁾

선성은 예안의 古號이다. 김담수의 맏아들 정룡은 1585년(선조 18) 국가의 宗系를 개정하는 일로 시행한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박사(1595년, 선조 28)를 거쳐, 1596년(선조 29)에 이곳 현감으로 봉직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김담수는 그의 아들이 고을살이를 하고 있는 곳으로 피신하기로 마음먹고, 늙은 어머니를 관아에 모시고 자신은 거기서 조금 떨어진 임하현 정정리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그는 이황의 제자들과 다양한 교유를 하기도 하지만, 그의 생각은 전쟁이 끝나 속히 고향에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이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심하여 안개 낀 아침, 달이 뜬 저녁, 구름 낀 밤, 안개가 걷힐 때이면 조상의 무덤이 황폐해짐을 생각하고 나라가 회복되지 못한 것을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¹⁵⁾

예안이 비록 이황의 유품이 남아 있고, 또 종유할 만한 어진 선비들이 있어 잠시나마 떠돌이 생활에서 오는 근심과 곤궁을 잊어버릴 수 있는 ‘樂土’였지만,¹⁶⁾ 그의 마음은 항상 고향을 향해 있었다.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김담수는 思鄉과 憂國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눈물과 한숨으로 날을 보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다수의 작품은 바로 이러한 정서에 기반해 창작된 것이다. 사향은 자연스럽게 나그네로서의 羈旅意識과 결합되기 마련이다. 다음 작품에 이러한 정서가 깊게 배어 있다.

14) 金聃壽, <宣城雜詠序>, 『西溪集』 卷2, “歲在戊戌暮春之初, 余以寇亂, 奉老携幼來寓宣城. 宣城, 乃長兄作宰之邑也, 以子宰而父居其邑, 非國典也. 遂移寓于花山之府, 臨河縣之北村鼎井里, 便於覲親故也.”

15) 金聃壽, <宣城雜詠序>, 『西溪集』 卷2, “思鄉之念, 憂國之心, 日以益深, 至於煙朝月夕雲暝霧晴之時, 則念松楸之榛荒, 痛國家之未復, 而未嘗不洒然慨歎也.”

16) 金聃壽, <宣城雜詠序>, 『西溪集』 卷2, “心欣然, 以爲樂土, 便忘瑣尾之憂也.”

夢覺幽窓曉	꿈에서 깨어나니 그윽한 창가의 새벽
悲懷底處陳	슬픈 마음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花山雖信美	안동이 비록 참으로 아름답기는 하지만
南客自傷神	남쪽에서 온 객은 스스로 가슴만 아프다네
月苦松楸露	달빛은 괴롭게 선영의 이슬에 비치고
風淒戰伐塵	바람은 처량하게 전쟁터의 먼지를 날리네
空將杜子淚	공연히 두자미처럼 눈물을 흘리나니
揮灑倍今晨	오늘 새벽은 눈물을 배나 뿌린다네 ¹⁷⁾

안동으로 피란을 온지 한 달쯤 뒤인 1598년 4월 24일, 기일 새벽에 일어나 고향의 선영을 생각하며 지은 작품이다. 수련에서는 기일을 맞은 새벽의 쓸쓸한 심정을 표출했다. 함련에서 제시한 花山은 안동을 의미하고, 南客이라 표현한 것은 그 스스로가 성주에서 피란을 왔기 때문이다. 경련에서는 쓸쓸하게 달빛이 비치는 그리운 선영을 제시하면서 안동과 성주 사이에 전쟁으로 일어난 먼지가 처량하다고 했다. 여기까지 시상을 전개시킨 김담수는 미련에서 두보처럼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제삿날을 맞아 더욱 뜨거울 수밖에 없었다.¹⁸⁾

김담수의 어머니 순천 박씨는 피란을 간 예안의 관아에서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장사를 치르기 위하여 성주로 내려오다가, 왜구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尙州 渭水 북쪽의 勝洞에 임시로 장사를 지냈다.¹⁹⁾ 상

17) 『西溪集』 卷1 張1, 「四月念四諱日曉起因念鄉井丘壟感而述懷」.

18) 김담수 문학과 두보의 관계는 정우락, 「서계 김담수의 전쟁체험과 문학적 대응」, 『영남학』 10,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6. 389-392쪽 참조.

19) 이상징이 쓴 <행장>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나 柳岐睦이 쓴 <先生實記>에는, 정유재란 때 예안으로 피신했다면서, “다음해 무술(1598)년에 상주로 옮겨 그해 겨울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자 위수 북쪽에 장사지내고 묘소 아래에서 시묘를 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직접 쓴 <선성잡영기>에 1598년(무술, 선조 31)으로 기록되어 있고, <답자정룡>에서 1598년에 강좌로 피란 갈 것을 고민하고 있으니, <행장>의 기록이 정확하다. 즉, 그는 정유재란 이듬해인 1598년에 예안으로 피란을 갔고, 그해 겨울에 어머니가 돌아가서 어머니의 시신을 모시고 고향으로 내려오다 상주 위천 가에 어머니를 임시로 매장하면서, 상주 죽암촌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례를 마치고 김담수는 상주 竹巖의 산수를 특별히 사랑하여 거기에서 송죽을 기르며 매화와 국화를 심고 살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고향생각은 갈수록 깊어졌다. 타의에 의해 객지를 떠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상주에서 지은 다음 시편에서 이러한 정서가 다량 검출된다.

天地干戈已十載 천지간에 전쟁이 난 지 이미 십 년
靡家靡室淚空揮 집도 없이 그저 눈물만 뿌린다네
白頭來住蒼江上 흰 머리로 푸른 강가에 머물면서
不見淸平恨未歸 태평치 못하여 돌아가지 못함을 한하노라²⁰⁾

상주 죽암에서 쓴 <述懷三首> 가운데 첫 번째 작품이다. 10년간의 전쟁 때문에 집도 없이 떠돌며 눈물을 흘린다고 했다. 푸른 강가는 죽암촌을 말하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恨未歸’라 하였다. 이러한 시상을 전개하며 제2수에서는 “강촌에 떠도니 왕래 끊어지고, 문 앞 소나무만 절로 휘감고 있네.”²¹⁾라고 하였고, 제3수에서는 “외로운 마을 이끼 낀 오솔길 오는 사람 적은데, 꽃이 피고 질 때 마음이 가는대로 배회하네.”²²⁾라고 하였다. 나그네의 외로움 심사가 가득 묻어 있는 시편들이다. 그의 사향심은 다음 시에서 극치를 이룬다.

離鄉千里夢依依 천릿길 고향 떠나 꿈속에 어렴풋하니
欲向家山路不微 집으로 가려 하나 길은 짧지가 않네
遙想某丘風日好 멀리 생각하노니 고향 언덕엔 날씨도 좋아
渚禽應喚主人歸 물새도 응당 주인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지²³⁾

김담수는 <思鄉>이라는 시를 2제 3수로 짓는데 이 작품은 그 가운데 하

20) 金聘壽, <述懷>(1), 『西溪集』 卷1.

21) 金聘壽, <述懷>(2), 『西溪集』 卷1, “飄泊江村絕往來, 門前松樹自環回.”

22) 金聘壽, <述懷>(3), 『西溪集』 卷1, “孤村苔逕少人來, 花落花開任自回.”

23) 金聘壽, <思鄉>, 『西溪集』 卷1.

나다. 이에 의하면 자신만 일방적으로 고향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고향의 물새도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했다. 그의 사향의식은 이처럼 고향의 사물과 상호작용하며 극대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김담수의 사향시에는 '물'의 상상력이 많이 활용되었다. <聞灘聲有感>에서는 여울물,²⁴⁾ <偶吟>과 <思鄉二絕>에서는 고향의 椰溪,²⁵⁾ <渡江吟>에서는 강을 통해 고향 생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²⁶⁾ 또한 그 스스로 “시절을 염려하여 생각은 마치 저 강물처럼 변함없이 동으로 흐르는 것을 멈추지 않네.”²⁷⁾라고 하면서 물의 연속성과 사향의 지속성을 빗대어 노래하기도 했다.²⁸⁾

1602년 가을, 마침내 김담수는 꿈에 그리던 고향 성주로 돌아온다. 선대의 묘소를 살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이제는 고향에서 병마와 싸워야 했다. 이에 대하여 그는 “먼 길 험난하여 온갖 병 앓다가, 고향 집에 돌아와도 슬픔만 가득하네. 밤새 잠 못 들어 맑은 마음으로 누워있자니, 때때로 창 앞에서 물 길는 소리만 들려오네.”²⁹⁾라고 하였다. 이것은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에 돌아가서 형제들과 어울려 살고자 했던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다. 어머니와 형제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마저 이제 병들어 누워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괴로움 끝에 그는 생애 최후의 시를 남긴다. 다음 작품이 그것이다.

24) 金聃壽, <聞灘聲有感>, 『西溪集』 卷1.

25) 金聃壽, <偶吟>, 『西溪集』 卷1. “幅巾他日椰溪上.” 金聃壽, <思鄉二絕>, 『西溪集』 卷1. “家在椰溪水上村.”

26) 金聃壽, <渡江吟>, 『西溪集』 卷1.

27) 金聃壽, <聞鶯>, 『西溪集』 卷1. “傷時一念如江水, 一向東流不暫遲”

28) 김담수가 안동이나 상주에서 고향을 그리워 할 때 물을 자주 떠올리는 것은 낙동강이 고향 성주로 흘러간다는 생각도 은연중에 작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고향은 ‘산천’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밖에도 피꼬리 소리를 들으며(<聞鶯>), 소쩍새 소리를 들으며(<次孫叢巖韻>) 고향을 생각하기도 했다.

29) 金聃壽, <壬寅冬還星山, 病中吟>, 『西溪集』 卷1. “長路間闌百疾嬰, 歸來故室只傷情. 夜深無夢清心臥, 時聽窓前汲水聲.”

昔何東海又何南	예전에 동해로 갔다가 또 어이 남쪽으로 가는가
問我爾行幾時歸	나에게 지금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를 묻는다네
策馬關山千里道	관산 천 리 길에 말을 채찍질하며
望雲珠漏濕羅衣	구름을 바라보니 눈물이 옷깃을 적시네 ³⁰⁾

이 작품은 1603년(선조 36) 김담수의 나이 69세에 지은 것으로 제목은 <夢作>이다. 기구에서 그는 꿈속에서 동쪽과 남쪽으로 떠돌아다닌다고 했다. 전쟁으로 인한 기려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승구에는 이별의 정한이 가득하다. 언제 돌아올지를 알 수 없는 이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구에서는 천 리 밖에 있는 고향[관산]을 향하여 말을 채찍질한다고 했고, 결구에서는 도중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인 望雲之情을 느끼며 눈물을 짓는다고 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화목하게 살던 옛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나 그가 꿈꾸던 단란한 가족이 있는 고향은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죽음이 목전에 있을 따름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전쟁으로 인한 김담수의 고향상실과 함께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고독을 감지하게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김담수의 작품에는 전쟁으로 인한 사향의식이 가득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가솔을 이끌고 가야산으로 피란을 하였고, 정유재란 이후에는 아들 정룡이 벼슬을 하고 있는 예안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그 자신은 안동에 살게 된다. 어머니 상을 당한 이후에는 상주 죽암촌에 머물러 살기도 하지만, 그의 의식은 언제나 성주 수륜에 있었다. 1602년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가족이 모두 떠난 그의 고향은 이미 고향이 아니었다. 즉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의 기려의식은 지속되었고, 마침내 죽음을 감지하며 다시 방황한다. 여기서 우리는 김담수 문학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존재론적 고독을 확인하게 된다.

30) 金聘壽, <夢作>, 『西溪集』 卷1.

Ⅲ. 가족을 향한 김담수의 마음

가족은 혈연과 인연, 그리고 입양으로 구성된 일정 범위의 집단을 의미한다. 17세기 후반이후 조선사회는 가문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가족이 가문에 귀속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임진왜란 등으로 인한 불안한 사회적 상황에서는 가족 내적 안위 문제에 더욱 집착하기 마련이다. 김담수 가족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현재 남아 있는 그의 문집을 일별해보면, 어머니, 형제, 아들 등의 가족 구성원이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한다. 이것은 전쟁이라는 위기적 상황 하에 자연스럽게 제출된 현상이다. 본장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면서 가족에 대한 김담수의 마음이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慈親에 대한 간절한 효심

김담수는 아버지 김관석을 그의 나이 8세에 여윈다. 이때 그는 喪期를 넘겨서까지 素食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목격한 외할머니 이 씨가 그의 병약함을 근심하여 권도를 파르도록 했다는 이야기³¹⁾는 죽은 이를 위한 묘지명 등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과장만은 아니다. 여러 자료에서 보듯이 그의 효심은 출천하였기 때문이다. 김담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므로, 어릴 때부터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고, 이에 따라 어머니에 대한 깊은 효심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하여 曹挺融(湖翁 1598-?)은 <墓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어머니를 모실 때에도 정성을 다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나는 맛있는 것을 봉양하는 데 있어서는 가난하여 뜻대로 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31) 曹挺融은 <墓誌>(<『西溪集』 卷3)에서, “八歲執父喪, 食素過期, 外王母李氏, 愍其病弱, 強之以從權.”라고 하였다.

여기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병이 들어 탕약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몸소 맛을 본 뒤에 올렸는데, 그때마다 신묘하게 특이한 효험이 있었다.³²⁾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김담수는 어머니를 모시는 데는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한 그렇게 실천하였다고 스스로 자부하였다. 이것은 물론 공자의 효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일찍이 공자가 子游의 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能養’보다 ‘敬’을, 孟武伯의 질문에 대해서는 ‘無違’를 강조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³³⁾ 김담수의 효행은 가야산의 중들이 그의 효행에 감동하여 음식을 주고, 성주목사 許潛(寒泉, 1540-1607)이 식물을 공급하였다는 이야기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김담수의 효행은 그가 직접 남긴 글에서도 보인다. 우선 다음 자료를 보자.

보내준 물건은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씩 살펴서 받아들이게 하였다. 이것으로 어머니를 수십 일 봉향할 수 있을 터이니 매우 기쁘다. 어머니는 난리를 겪은 뒤로는 오래도록 자리를 보존하고 계셔서 몸 돌리는 것도 내가 도와드려야 하니 나의 기쁨과 두려움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지난 번 반찬이 떨어졌을 때에는 매를 기르는 집에 가서 꿩을 좀 꾸어 오려고 했었다. 지금 여러 가지 생선과 고기를 얻었으니 너무나도 기쁘다.³⁴⁾

위의 글은 성주에 살고 있던 김담수가 맏아들 정룡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이에 의하면, 몸져누운 어머니를 모시면서 ‘一喜一懼’한다고 했다. 한편으로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아계시니 기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살날이

32) 曹挺融, <墓誌>〔『西溪集』卷3〕, “養偏慈極其備至, 嘗曰, 我於甘旨之奉, 貧不能稱情, 但得親心不拂耳. 親癯湯藥, 必親嘗而後進, 輒有異效如神.”

33) 『論語』「爲政」편에, “子游問孝,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라고 하였고, 같은 편에 “孟懿子問孝, 子曰, 無違.”라고 하였다.

34) 金聃壽, <答子廷龍(又)>, 『西溪集』卷2, “所送物件, 令兒輩一一考納, 可以將母數旬, 深喜深喜. 老親自經患以後, 長臥床褥, 轉側由我, 我之喜懼, 可勝云喻耶? 頃者, 佐飯之絕, 方欲爲乞雉於養鷹之家, 今得種種魚肉, 尤用喜極.”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다. 위의 글을 통해 전쟁의 와중에도 생선과 고기 등으로 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도 읽을 수 있다. 정유재란 이후 어머니를 정릉이 있는 예안 관아에 모셔두고 자신은 안동 임하에 살게 되지만, 곁에 있어도 그리운 어머니였다. 이러한 마음이 다음 작품에 응축되어 나타난다.

羈寓空山秋夜清	객지 공산에 가을 밤 기운은 맑지만
蛩邊無夢坐三更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밤 새워 앉았다네
年來尤覺衰顏甚	근년에 얼굴 더욱 쇠약해지셨는데
離側難堪寸草情	어머니 곁 떠난 작은 마음 건디기 어렵네 ³⁵⁾

1598년 8월 27일 그리운 어머니를 위해 지은 <八月念七夜懷親有吟>이다. ‘객지’는 피란지인 안동 임하 정정리를 말한다. 낮선 산에 가을이 와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니 어머니 생각이 간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기구와 승구에 실어두었다. 그리고 전구에서 보듯이 근년 어머니가 더욱 쇠약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결구에서는 孟郊가 <游子吟>에서 말한 “누가 말할 수 있으리? 한 치의 작은 풀 같은 마음으로, 석 달 봄별 같은 사랑을 보답할 수 있다고!”³⁶⁾라고 한 것을 인용하며 哺育之恩을 갚을 수 없음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있다. 이처럼 김담수의 마음은 항상 어머니 곁에 있었던 것이다. 다음 작품을 보자.

幾年思子暮雲邊	노을 보며 몇 년을 그대 그리워하였나
相對今朝意豁然	마주한 오늘 아침 마음이 트이도다
留客雨來農亦識	객 머물라며 비오는 줄 나도 알지만
催還端爲慰慈天	돌아가길 재촉하는 건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 ³⁷⁾

35) 金聘壽, <八月念七夜懷親有吟>, 『西溪集』 卷1.

36) 孟郊, <游子吟>, “誰言寸草心, 報得三春暉.”

37) 金聘壽, <次尹芝嶺韻四韻> 其三, 『西溪集』 卷1.

이 작품은 <次尹芝嶺韻四韻> 가운데 세 번째 시이다. 芝嶺은 안동 출신 尹義貞(芝嶺, 1525-1612)으로, 김담수가 안동으로 피란 갔을 때 김부륵 등과 함께 교유한 인물이다. 어머니가 예안현 관아에 계셨으므로, “천 리 험한 길을 어머님 모시고 왔는데, 고을 수령이 봉양하니 또한 영광스럽네.”³⁸⁾라고 하기도 했다. 위의 작품을 보면, 그리워하던 윤의정을 만나 회포를 푸는 중에 비가 왔다. 그러나 김담수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위의 시로써 말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노모에 대한 김담수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처럼 김담수는 어머니에 대한 효도가 각별하였다. 그의 효행은 사후에 작성되는 묘갈명이나 행장류에서 흔히 나타나는 상찬이 아니다. 전쟁을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은 항상 노모와 함께 있었고, 그 스스로도 평생 동안 어머니의 뜻을 거스른 일이 없다고 자부하기도 했다. 특히 몸져누운 어머니를 모시면서 ‘一喜一懼’ 한다는 그의 발언을 통해 어머니를 향한 그의 마음을 바로 알 수 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쁘고, 병이 깊어 돌아가실까를 두려워하는 효자의 마음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어머니를 향해 있는 그의 마음은 간절한 것이었다.

2. 思鄉과 思母 정서의 결합

고향과 어머니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다. 이 둘은 우리의 육신과 정신을 형성하는 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따뜻한 품과 같은 안식처로 인식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둘은 영원한 그리움의 대상으로 문학의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었다. 또한 고향과 어머니는 그 공통성 때문에 소재적 측면에서 쉽게 결합되기도 한다. 고향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김담수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보편 정서가 흐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김담수 문학에 나타난 사향과 사모의 정서

38) 金聘壽, <思歸>, 『西溪集』 卷1, “千里間關奉母來, 專城爲養亦榮哉.”

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관찰해 보기로 한다. 우선 김담수의 다음과 같은 기억을 주목해 보자.

昔年避亂鄒山後	예전에 가야산 뒤로 피란을 했을 때
兄弟四人共笑語	형제 네 사람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 나누었지
今日追思惟我獨	오늘 나 홀로 회상을 해보나니
西風不耐悲無數	서풍에 끝없는 슬픔 견디지 못하겠네 ³⁹⁾

이 작품은 제목에서 말하고 있듯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4형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산 북쪽으로 피란을 하여 근심과 기쁨을 함께 하였으나, 그 후 형제가 잇달아 세상을 떠나고 자신만 어머니 곁에 남게 되었다. 김담수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위와 같은 시를 짓는다고 했다. 임진왜란으로 고향의 산인 가야산으로 피신했을 당시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형제들이 살아 있어 험난함 속에서도 행복했었다고 회고했다. 네 명의 형제들, 즉 聘老, 聘年, 聘壽, 聘祺가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웃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은 전쟁의 와중에 모두 죽고 남은 사람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자신 밖에 없음을 발견한다. 이 때문에 그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갔고, 어머니를 향한 마음은 더욱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다.

김담수는 특히 만형 김담노에 대한 그리움을 견딜 수 없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 그는 만형을 아버지처럼 의지해 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그는 <憶伯兄>이라는 작품에서, “영원한 이별에 가슴 미어지는 어찌할 수 없는 슬픔, 명하니 가야산 바라보니 눈물만 흐르네.”⁴⁰⁾라고 하기도 하고, 꿈에서 본 그리움을 견딜 수 없어 <夢見伯兄, 因感有述>을 짓기도 했다. 여기서 그는 “갑자기 꿈에서 만나 예전처럼 즐거웠지만, 깜짝 놀라 깨어보니 눈물만 가슴을 적시네.”⁴¹⁾라며 슬퍼하였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 주던 만

39) 金聘壽, <昔在壬辰, 兄弟四人, 奉母避亂于鄒山之北, 欣憾共之, 厥後兄弟相繼而逝, 我獨在親傍, 不勝悲惋, 因述一絕.>, 『西溪集』 卷1.

40) 金聘壽, <憶伯兄>, 『西溪集』 卷1, “傷心永隔悲無奈, 悵望鄒山淚自傾.”

41) 金聘壽, <夢見伯兄, 因感有述>, 『西溪集』 卷1, “夢裏忽逢歡若昔, 寤來驚覺涕垂膺.”

형에 대한 김담수의 사무치는 그리움을 읽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에 대한 향념은 더욱 강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작품을 보자.

旅寄山中月正規	산 속에서 나그네로 머물며 둥근 달 보나니
蜀禽何事喚催歸	소쩍새는 무슨 일로 돌아갈 길을 재촉하는고
流離故國音淒切	고국을 떠났으니 울음이 정녕 처절하고
飄泊他鄉恨益深	타향을 떠도니 한은 더욱 깊어지네
聲徹半夜羈夢斷	소리는 한밤에 계속되고 나그네 꿈은 끊어지는데
悲深離膝眼波微	슬하를 떠난 슬픔 더욱 깊어져 눈에는 잔물결 이네
啼時慎莫慈闈近	조심하여 어머니 가까이 가서 울지를 말아라
攪起親心怨返遲	어머니 마음이 흔들리면 늦게 돌아옴을 걱정하실라 ⁴²⁾

孫守慶의 시에 차운한 <次孫叢巖韻>이다. 이 작품 기구의 ‘촉금’에서 볼 수 있듯이 망해버린 촉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애절하게 우는 望帝魂의 고사를 떠올리며 타향을 떠도는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두견새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서로 맞물리면서 문학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그 슬픔이 어머니께로 전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견새에게 주의를 주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그 스스로가 조심하여 어머니 앞에서 슬픔을 보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소쩍새를 통한 사향과 사모의 결합은 다음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蜀魄分明枝上啼	소쩍새가 가지 위에서 또렷하게 울음 우니
鄉思忽起意悽悽	홀연히 고향 생각이 일어나 마음이 처량해지네
何方掃却兇鋒盡	어찌하면 적의 흥분을 깨끗이 물리쳐 다 없애고
陪母生還鄒水西	살아서 어머니 모시고 가천 서쪽으로 돌아갈거나 ⁴³⁾

이 작품은 <聞杜鵑>으로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지은 것이다. 소쩍새

42) 金聘壽, <次孫叢巖韻>, 『西溪集』 卷1.

43) 金聘壽, <聞杜鵑>, 『西溪集』 卷1.

의 울음소리가 귀향을 간절히 바라는 외로운 자의 하소연처럼 들리니, 승구에서 보듯이 자연스럽게 고향과 결합시킬 수 있었다. 즉 김담수는 가지 사이에서 우는 소쩍새의 또렷한 소리를 듣고 '홀연히' 고향생각이 났던 것이다. 앞의 <次孫叢巖韻>이 소쩍새를 통해 고향을 그리워하기만 한 것이라면, 이 작품은 적을 소탕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의지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적극성을 띤다.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그의 생각은 다음 작품에서 보듯이 꿈속에서도 지속되었다.

世事悠悠百不能	세상 일 아득하고 하나도 되는 일 없는데
故山歸夢入秋增	고향에 돌아가는 꿈은 가을 들어 더해지네
何時陪母還鄉土	언제쯤 어머니를 뵈시고 고향으로 돌아가
四友堂前舞綵繒	사우당 앞에서 비단옷 입고 춤출 수 있을까 ⁴⁴⁾

김담수가 꿈속에서 얻은 구절은 기구이다. 나머지 구절은 잠을 깬 후 여기에 잇대어 쓴 것이다. 기구에서 세상 일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후의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더욱 나아가 사우당을 통해 아버지를 떠올리기도 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김담수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자신을 내세우며 가족의 복원을 얼마나 꿈꾸었는지를 알게 된다. 김담수의 이상은 바로 전쟁으로 인해 훼손된 가족의 온전한 복원 그것이었다.

김담수 문학에 나타난 사향은 사모의 정서와 결합되면서 더욱 정채를 띤다. 특히 애절하게 우는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통해 사향심이 더욱 간절하게 되었고, 늙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 역시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다. 그의 최종 이상은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가 효도를 다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그의 작품에는 아버지 사우당, 죽은 만형 등이 함께 등장한다. 이는 전쟁으로 훼손된 가족의 온전한 복원을 그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하는

44) 金聘壽, <夢述一絶但記首一句餘不記得回成下三句>, 『西溪集』 卷1.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3. 長子에 대한 각별한 父情

김담수는 맏아들 金廷龍(月潭, 1561-1619)에게 특별한 정을 지니고 있었다. 정통과 다양한 편지를 주고받으며 가장 많은 교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문집 속에 남아 있는 16편의 편지 가운데, 장자 정룡에게 보낸 것은 12편이나 된다. 이들 편지에는 성주에서 예안으로 보낸 것이 11편, 안동 임하에서 예안으로 보낸 것이 1편이다. 편지의 내용은 관리로 나아가는 아들에 대한 당부, 당시의 전황에 대한 소식, 가야금요·청량 산성 등 산성 축조에 대한 정보, 어머니를 모시고 예안 쪽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 등으로 다양하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행간에 깊게 녹아 있다. 우선 다음을 보자.

예안은 비록 작은 고을이지만 실로 문헌의 고을이다. 진실로 어진 士友를 얻어 고을의 병폐를 물어보고 찾아서 쇠잔한 백성들이 보살피는 교화를 입게 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 그러나 네 자신에게 성실과 믿음의 덕이 있는 뒤에야 저들이 네게 즐거이 말하려고 할 것이다. 반드시 충분히 삼가고 조심하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다면 더욱 좋겠구나.⁴⁵⁾

네가 만약 그 선한 풍속으로 말미암아 공평하고 간편함으로 백성을 가까이 한다면 어찌 다스리기 어렵겠느냐? 모름지기 士友들 중에서 훌륭한 이들을 얻어 돈독함을 더하고 공경함을 힘써서, 늙은 아버지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아라.⁴⁶⁾

45) 金聘壽, <答子廷龍>, 『西溪集』 卷2, “縣雖小, 實是文獻之鄉也. 誠得賢士友, 咨訪弊癘, 使殘民得沾愛育之化, 可也. 然, 在我有誠信之德, 然後, 在彼有樂告之理, 望須百分謹慎, 無貽人言, 甚可.”

46) 金聘壽, <答子廷龍(又)>, 『西溪集』 卷2, “汝若因其俗之善, 而平易近民, 豈有難治之理哉! 須得士友之善, 而益篤懋敬, 以無負老父之望也.”

이 자료는 김담수가 아들 정룡에게 보낸 답신의 일부이다. 1596년(선조 29) 예안 현감으로 나아가는 만아들에게 관리로서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의 자료에서 보듯이 스스로가 '성실'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백성들과의 기본적인 소통원리라 본 것이다. 고을의 일은 '공평'하고 '간편'하게 할 것이며, 특히 뜻을 돈독히 하여 훌륭한 사우들과 사귄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쟁 중이라도 독서를 게을리하지 말기를 당부하기도 하는 등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이러한 장자에 대한 아버지의 정은 다음과 같은 시를 통해 구현되기도 했다.

吾邦自昔貴文苑	우리나라는 예부터 文苑을 귀히 여겼는데
天步艱難強弱吞	천운이 험난하여 강자가 약자를 삼키네
從古聖賢履險去	예로부터 성현은 험한 일을 겪었으니
儻來憂患不須論	우연히 닥친 우환은 말할 필요가 없노라 ⁴⁷⁾

이 시는 김담수가 강직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아들 정룡이 병마절도사에 게 욕을 보았다는 소문을 듣고 위로 차 지은 작품이다. 여기서 그는 맹자 대장부론의 '動心忍性'을 들어, 이러한 험난한 일이 오히려 그를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 했다. 이 밖에도 변방의 장수가 위세를 마음대로 부린다는 말을 듣고 한 수의 절구를 지어, “산에 호랑이가 없고 못에 용이 없으면, 온갖 괴상한 일이 일어나고 여우와 이리가 설친다.”⁴⁸⁾라고 하면서 그 장수를 맹비난하였다. 이처럼 한편으로 정룡에게 격려를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란 중에 그에게 번고가 생기지나 않을까 몹시 걱정하였다. 다음 작품을 보자.

遑遑王事獨賢勞 나랏일에 허둥지둥 홀로 수고롭고

47) 金聃壽, <長兒賦性耿介, 遭兵使之辱, 恐其慷慨太甚, 以動心忍性爲勉>, 『西溪集』 卷1.

48) 金聃壽, <聞邊帥恣威, 吟一絕, 以示長兒>, 『西溪集』 卷1, “山亡雄虎澤龍亡, 百怪憑凌狐狸行.”

奔走兵塵歎奈何 전쟁 속에 분주하니 탄식한들 어찌겠나
只念病身難供職 병든 몸으로 직분을 수행하기 어려울까
倚窓無寐費憂多 창에 기댄 채 잠 못 들고 근심만 많구나⁴⁹⁾

이 시는 김담수가 1598년 9월 3일 밤 정릉을 생각하며 지은 것이다. 당시 정릉은 刷馬差使員이 되어 麻提督을 모시고 남하하게 되었는데, 김담수는 당시 병으로 몸이 좋지 않았던 정릉에게 혹시 번고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위와 같은 시를 지었던 것이다. 전쟁 중에 관리가 나랏일 때문에 분주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그 직분을 병 때문에 수행하지 못할까를 심각하게 근심하였다. 한밤 창에 기댄 채 잠 못 이룬다면서 아들을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 밖에 중양절을 맞아 오기로 한 정릉이 오지 않자, 그 초조한 마음을 이길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은 작품을 짓기도 했다.

節迫重陽雨洗埃 중양절 임박하여 비가 먼지를 씻는데
幾人携手看花來 몇 사람이나 손잡고 꽃을 보러 갈까
阿戎不返佳辰至 좋은 시절 왔지만 큰 아이가 오지 않았으니
對菊無緣慰慈懷 국화를 대해서도 어머니 마음 위로할 길 없어라⁵⁰⁾

江館蕭蕭秋雨聲 강촌에 쓸쓸히 내리는 가을비 소리
旅軒寥落轉淒涼 적막한 여관은 더욱 처량하여라
何時得見元龍面 어느 때 너의 얼굴 보면서
說盡心中無限情 마음속 무한한 심정을 다 말해 볼까⁵¹⁾

위의 두 수는 모두 중양절과 관련하여 정릉에게 보낸 것이다. 앞의 시는 중양절 이틀 전에 온다는 정릉의 소식이 없어 걱정이 되어 지은 것이고, 뒤의 것은 중양절 하루 전에 비가 내리는데 오지 않는 정릉을 생각하며 지은

49) 金聃壽, <菊月初三夜, 憶長兒>, 『西溪集』 卷1.

50) 金聃壽, <重陽在明明, 而長兒未還, 賦一絕>, 『西溪集』 卷1.

51) 金聃壽, <重陽前一日, 聞雨聲有述>, 『西溪集』 卷1. 전구의 ‘元龍’에 대하여 原註에는 “長兒名廷龍, 故稱元龍”이라 하였다.

것이다. 그러나 이 시가 같은 해에 지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중앙절을 맞이하여 맏아들 정룡을 볼 수가 없어, 앞의 시에서는 어머니를 위로할 수 없다고 했고, 뒤의 시에서는 그리운 마음을 풀 길이 없다고 했다. 특히 뒤의 시 결구에 '無限情'을 제시하여 정룡에 대한 사랑을 직설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김담수의 문학에는 어머니에 대한 효도만큼이나 장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강하게 스며있다. 난리 가운데 공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될 정룡의 고초를 생각하면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진솔하게 표출하였다. 그리고 정룡에게 고을을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는 '성실'과 '믿음'의 마음가짐은 물론이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공평'과 '간편'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맏아들 정룡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정은 한없이 깊고 넓었던 것이다.

4. 諸子에 대한 교감과 당부

김담수는 창녕 조씨와의 사이에서 5남 2녀를 두었다. 맏아들 정룡을 비롯해서 廷獻, 廷稷, 廷契, 廷堅과 成機, 洪裕承에게 시집간 두 딸이 바로 그들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김담수는 장자 정룡에게 각별한 부정을 느끼며 서신과 시를 주고받았다. 그렇다고 하여 여타의 아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정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에게 보낸 작품의 수가 적은 것은 아마도 문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료 수집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다음 작품을 읽어보자. 안동으로 피란 갔을 당시 두 아들 앞으로 보낸 것이다.

千里離家歲已周	천 리나 멀리 집을 떠나 한 해가 지났으니
歸心日夜逐東流	돌아가고픈 마음 밤낮 동쪽으로 흐르네
傳聞海隅兵塵熄	전해 들으니 바다 모퉁이 전쟁의 먼지가 사라졌다 하니
却喜生還續舊遊	살아 돌아가 예전처럼 노닐 수 있을 듯해 기뻐구나 ⁵²⁾

누구인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시제가 <再步周字韻, 寄兩兒>이니 피란 중 두 아들에게 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승구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항상 흐르는 물에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의 꿈을 꾸기도 했다. 김담수는 이처럼 여러 아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정서를 교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쟁의 와중에도 틈을 내어 청량산 유람을 계획한 일이 있었었다. 그러나 큰비로 유람을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되자, “차가운 비가 강물에 더해져 멋진 유람을 가로막는다.”⁵³⁾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시를 써서 하소연하기도 했다. 역시 아버지와 아들의 적극적인 문학적 교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아들 정룡 다음으로 많은 작품을 주고받은 사람은 둘째 아들 廷獻이다. 현재 정헌에게 준 시는 다섯 수가 확인된다.⁵⁴⁾ 일찍이 정헌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시를 지은 적이 있었다. “화산의 가을밤 달은 떠올라, 소쩍새 소리 들으며 시름에 잠기네. 바다의 부평초 같은 나그네가, 만 리 길 강남이 그림기만 하네.”⁵⁵⁾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그는 소쩍새 소리를 들으며 멀리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江南萬里情’라 하여 그 간절함의 정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 시를 보고 아버지 김담수는 다음과 같은 작품으로 차운을 했다.

旅榻涼風至	나그네 잠자리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蕭蕭秋雨聲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 비 소리 듣노라네
天涯憔悴客	하늘 끝에 머무는 초췌한 이 나그네
輾轉未歸情	돌아가지 못하는 마음에 잠 못 이루네 ⁵⁶⁾

52) 金聘壽, <再步周字韻, 寄兩兒>, 『西溪集』 卷1.

53) 金聘壽, <示兩兒>, 『西溪集』 卷1, “却慚病客無山分, 凍雨添波阻勝遊.”

54) 이 중 두 수는 다른 아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했다.

55) 金廷獻, <原韻>(金聘壽, 『西溪集』 卷1), “華山秋夜月, 愁聽子規聲. 海上浮萍客, 江南萬里情.”

56) 金聘壽, <次次兒韻>, 『西溪集』 卷1.

<次次兒韻>이라는 작품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김담수는 애절하게 우는 소쩍새와 성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즐겨 동일시하였다. 이것으로 그의 사향심을 극대화시켰던 것이다. 그의 둘째 아들 역시 소쩍새와 사향을 소재로 한 시를 짓자, 그는 여기에 차운하여 하늘 끝에 머무는 외롭고 초췌한 자신을 떠올리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처지에 대하여 한스러워하였다. 이 같은 부자간의 정서적 교감은 김담수 문학에서 하나의 특징을 이룬다. 그러나 김담수는 그의 아들이 고향만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미래를 꿈꾸는 참된 선비가 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다음 시를 보자.

古刹荒涼客夢疎	오래된 절 쓸쓸하여 꿈이 드물겠지만
讀書滋味勝村居	글 읽는 재미는 시골 마을보다 나으리
固知富貴皆由命	부귀는 모두 천명에 달렸음을 알 터이니
只願輸功養性初	다만 본성 함양에 힘을 쏟기 바란다 ⁵⁷⁾

김담수가 둘째 아들 정현에게 준 <寄仲兒>이다. 이 시가 어떤 상황 하에 제작되었는가 하는 것은 작품의 문면에 잘 나타난다. 마을과 다소 떨어진 절로 과거 공부를 위해 떠나는 정현에게 당부하고 있기 때문이다.⁵⁸⁾ 그 당부는 뒤의 두 구절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부귀를 위한 공부와 본성 함양을 위한 공부가 그것이다. 김담수는 이 둘 사이에서 정현이 후자에 더욱 힘쓰기를 바랐다. 이러한 당부와 함께 아버지의 정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送仲兒>에서 “이별할 때는 가슴이 저려 움을 참을 수가 없어, 멀리 떠나는 너의 길을 보노라니 한숨이 그치지 않는구나.”⁵⁹⁾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김담수가 다섯 아들 가운데 셋째인 廷稷에게 준 작품은 보이지 않고, 넷째

57) 金聘壽, <寄仲兒>, 『西溪集』 卷1.

58) 정현이 과거공부를 위해 절로 떠났던 사실은 ‘固知富貴皆由命’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부귀와 공명이 중요하기는 하나 이것은 천명에 달려 있으니,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59) 金聘壽, <送仲兒>, 『西溪集』 卷1, “臨分不耐心腸痛, 極目長程恨不休.”

아들 廷契에게 준 것으로는 편지 한 통이 전한다. <答子廷契>이 그것이다. 여기서 그는 장자 정룡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는다는 소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謹慎에 더욱 힘쓰길 당부하고 있다. “네 형이 주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근신하지 않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단 말이나? 그러나 비방을 그치게 하는 데는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말을 더욱더 신중히 해야 한다.”⁶⁰⁾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처럼 수양을 강조하였던 김담수는 1602년(선조 35) 막내 아들 廷堅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훈계하기도 했다.

念爾于今一二莫	너를 염려한 지 지금까지 한두 달
一心長願保安平	한 마음으로 네가 무사하길 바란다네
飢寒困苦吾儒事	飢寒과 困苦는 모두 우리 선비들의 일이니
耐得辛勤建爾名	고생을 참고 부지런히 힘써 이름을 세우길 ⁶¹⁾

이 시의 제목이 <寄季兒>이니 막내 아들 정견에게 준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담수가 아들 정견이 있는 장소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飢寒을 참아가며 공명을 세우기를 바라고 있으니 과거공부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飢寒이 원래 선비의 일임을 주지시키고 이를 인내하며 힘써 공명 세우기를 희망한 것으로 보아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승구에서 보듯이 한 마음으로 그의 아들이 무사하기를 빌었다. 즉 김담수는 정견이 한편으로 기한을 참아가며 독실하게 공부하여 세상에 이름을 떨치기를 바라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의 무사와 안녕을 기원하고 있었던 것이다.⁶²⁾

60) 金聘壽, <答子廷契>, 『西溪集』 卷2, “汝兄得謗於其近處人云, 是何不謹慎, 以致人言也? 然, 止謗, 其如自修, 須益加慎言爲可.”

61) 金聘壽, <寄季兒>, 『西溪集』 卷1.

62) 아들에게 편지 등을 통해 과거 공부를 독려했던 것은 전통시대에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예컨대, 이황은 아들 준에게 530통이나 되는 편지를 보내는데, 이 가운데 과거를 통해 벼슬길로 나아갈 것을 지시한 내용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이장우, 「퇴계 부자와 과거 시험」(『대동한문학』 38, 대동한문학회, 2013)을 참조할 수 있다.

작품의 수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김담수는 맏아들 이외의 아들에게도 시를 주고받으며 문학적 교감을 긴밀하게 하고 있었다. 둘째 정현에게 보이는 것처럼 어떤 아들에게는 공명보다 수양을 강조하고, 막내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아들에게는 인내하며 공명을 세우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김담수가 아들의 재질과 능력에 따라 공명 혹은 수양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전란이라는 위기를 맞아 타향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의 아들들이 수양을 통해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거나, 공명을 이루어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IV. 가족 사랑의 사회적 의미

김담수의 문학에 가족주의가 뚜렷하다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다. 김담수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백형에 의지해 살다가 백형마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 전쟁의 와중에 홀로 남게 된 그는 홀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인다. 맏아들 정룡의 任所인 예산 관아로 어머니를 모시고 간 것도 모두 같은 이유에서였다. 전통 윤리가 가족을 특별히 중시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김담수는 전쟁을 통해 가족을 재발견하고 이것을 적극적인 문학적 소재로 삼고 있다는 것은, 문학이 단순한 유가적 가족주의를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의미망 속에서 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김담수의 가족 사랑이 갖는 의미를 사회적 측면에서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김담수의 가족 사랑은 修齊治平의 유가적 논리체계와 결합되어 있다. 이상정은 <西溪金公逸稿序>에서 “효성과 우애를 집에서 닦고 미덥고 바른 덕이 사람들에게 펼쳐졌으며, 고을에 있을 때는 자신을 절제하고 의를 지켰으며, 사물을 대하여서는 이익을 멀리하고 선행을 즐겼다. 묵묵히 실천하고 몸소 수양하여 은연 중에 덕이 날로 빛을 발하였다.”⁶³⁾라고 했다. 부모에

대한 효성과 형제들끼리의 우애, 즉 가족 사랑이 집에서 갖추어졌기 때문에 고을과 사물에까지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실, 김담수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그 스스로가 그의 아들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하던 바였다.

城主의 정치는 백성 사랑하는 마음을 으뜸으로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해나간다면 여러 백성들이 장차 고무될 것이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다행스러우냐. 너도 주상께서 고을을 맡아 다스리게 한 부탁을 깊이 체득하여 ‘勤謹’, 이 두 글자를 으뜸으로 삼아 남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면 매우 다행스럽겠다.⁶⁴⁾

이 자료는 김담수가 각별한 부정을 지니고 있었던 만아들 정룡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당시 정룡은 예안현감으로서 예안이라는 작은 고을을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우선 ‘애민’을 정치의 으뜸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 기반에 ‘부지런함[勤]’과 ‘삼감[謹]’, 이 두 글자가 있다면 이것으로 수기할 것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근근’을 기반으로 한 ‘애민’이 결국 고을을 맡긴 임금의 뜻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전쟁의 와중에도 “나랏일에 전심하여 현의 백성들을 잘 보살핀다면 매우 다행스럽겠다.”⁶⁵⁾라는 등의 편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수기와 충효를 일정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자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는 여기서 ‘수기’와 ‘치인’의 유기성 속에서 가족 사랑을 기반으로 한 ‘제가’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된다.⁶⁶⁾

둘째, 김담수 문학은 사향을 적극적으로 주체화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고향 상실의 비애를 사회적 차원에서 극대화시키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김담

63) 李象靖, <西溪金公逸稿序>, 『大山集』 卷44, “故孝友修於家, 孚尹達於人, 處鄉則約己而守義, 接物則遠利而樂善, 默行躬修, 闇然有日章之實.”

64) 金聃壽, <答子廷龍(又)>, 『西溪集』 卷2, “城主政治, 以愛民爲主, 若此, 不已星民, 將鼓舞之矣. 何幸何幸! 汝亦深體分憂之寄, 以勤謹二字爲主, 毋致人言, 幸甚.”

65) 金聃壽, <答子廷龍(又)>, 『西溪集』 卷2, “專心國事, 撫綏縣民, 幸甚.”

66) 孝悌의 실천을 바탕으로 한 치국 및 평천하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영찬, 『유교사회학의 패러다임과 사회이론』, 예문서원, 2008. 367-371쪽에 자세하다.

수의 작품은 '사향'을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 사향은 자발적인 여행 과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피란에 의한 離鄉이라는 비자발적인 것이었다. 전쟁이 귀향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향의식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 함께 살았거나 살고 있는 곳이 고향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終戰과 귀향은 객지를 떠돌던 그에게 있어 일생의 최대 과제였다. 다음 작품을 읽어보자.

心事何期敢布陳	이내 마음 어찌 다 말로 하라
不願東華汨寅申	성균관에서 과거 공부 원하지 않았네
情懷早擬商山老	마음은 일찍부터 상산사호 되려 하였는데
憔悴還如澤畔均	초췌한 모습은 오히려 굴원과 같네
東海暴鯨屠幾日	동해의 포악한 고래 다 죽일 날 언제러나
南還望斷度三春	고향 돌아갈 바람 끊어진 지 세 해나 되었다네
天心自是仁賢輔	하늘은 본래 어진 이를 도우시니
未久當看獻捷頻	오래지 않아 자주 승리의 소식을 듣겠지 ⁶⁷⁾

손수경의 시에 차운한 것이다. 이 시의 들머리에서 보듯이 자신의 뜻이 과거를 보아 출세하는 데 있지 않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의 지향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함련에 적어두었다. 세상을 잊고 바둑을 두면서 사는 商山四皓와 같은 삶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의 삶은 먹라수에 투신해 죽은 초나라의 애국시인 굴원과 같다고 했다. 현실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경련처럼 '동해의 포악한 고래'로 상징되는 왜적을 물리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제시하며 마무리했다. 우리는 여기서 전쟁으로 인한 고향상실이 그에게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왔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

셋째, 김담수 문학은 효도와 자애를 핵심으로 하는 가족 사랑의 선순환구조가 잘 드러난다. 자식에 대한 사랑인 내리사랑은 모든 동물이 갖고 있다

67) 金聘壽, <次叢巖韻(又次二首)>, 『西溪集』 卷1.

면, 치사랑인 효도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미덕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공자는 『논어』에서 효도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를 인간의 문명을 건설하는 핵심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孝慈를 바탕으로 한 제가가 치국과 바로 결합된다는 유교적 발상도 중요하지만, 김담수가 문학으로 보인 가족 사랑이 전쟁 속에서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가족 사랑이 효도와 자애의 선순환구조 속에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문학에서 추출되는 주제가 가족 내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 작품도 같은 방향에서 읽힌다.

聞道今來困暴橫	지금 병으로 시달린다고 하니
臥吟山榻意淒寒	산속에 누워 있어도 처량하기만 하구나
可憐親側無人省	슬프게도 어머니 모실 사람이 없어
獨抱穉兒到旅軒	어린 손자만을 여관으로 보내노라 ⁶⁸⁾

김담수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야 할 상황에 맏아들 정룡은 아파 여관에 누워있다. 전쟁으로 인한 격무 때문일 것이다. 이때 어린 손자를 보내며 위와 같은 시도 함께 부쳤다. 그가 부친 시에는 김담수의 어머니 순천 박씨, 작자 자신, 병들어 여관에 있는 맏아들 정룡, 손자 등 4대가 동시에 등장한다. 효심이 남달랐던 김담수는 위로 어머니를 모시고, 아래로 정룡에게 깊은 자애를 베푼다.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전하며 손자를 대신 정룡이 있는 여관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작자인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며 아들의 아버지로서, 효도와 자애라는 선순환구조 속에서 가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넷째, 김담수 문학은 가족 간의 정서적 교감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험난한 사회를 극복하는 가족의 내적 힘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68) 金聃壽, <聞長兒德臥旅舍, 欲往見之, 還思親傍無侍人, 獨遣穉孫以慰病中之懷.>, 『西溪集』 卷1.

측면에서 중요하다. 자료의 수렴과정에서 발생한 일정한 한계도 있었겠지만, 김담수의 문집에는 장자를 비롯한 그의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등 자식들과 주고받은 작품이 여럿 있다. 특히 시문학은 구체적인 사실을 묻고 답하는 편 지글보다 부자간의 정서를 교감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김담수가 아들의 작품에 차운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다음은 작품을 주목하자.

僑寓洛東江上村	낙동강 강마을에 옮겨 사시니
滄浪千頃護柴門	천 이랑 물결이 사립문을 감싸네
松間竹裏成茅棟	솔 사이 대 숲에 초가집을 짓고
借與烏衣養子孫	烏衣 빌려 자손을 기르신다네 ⁶⁹⁾

移居清洛已成村	맑은 낙강 가에 옮겨 사니 마을 이루어지고
松下爲壇竹作門	솔 아래 단 쌓고 대나무로 문을 만들었네
庭院無人春晝永	집뜰에 사람 없는데 봄날은 길어
遺編時閱教兒孫	선현의 유집을 보며 아이들을 가르치네 ⁷⁰⁾

앞의 시는 아들 김정룡이 지은 원운이고, 뒤의 것은 아버지 김담수가 지은 <次長兒>이다. 먼저 정룡은 예안에 있으면서 상주에 있는 아버지를 그리워 하며 시를 지어 올린다. 아버지가 낙동강 가의 죽암에 초가집을 짓고 살면서, 세상에 쓰일 인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자손들을 가르친다고 했다. 이에 김담수는 아들의 詩意를 그대로 이어받아 낙동강 가의 살고 있는 자신을 말하고, 이어 선현의 글을 읽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신의 현재적 생활을 묘사했다. 김정룡의 <伏次家大人睡起韻>, <又伏次松壇韻>, <家大人拈韻命和> 등의 작품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된 작품들이다.⁷¹⁾ 이처럼 김담수와 그의 아들 정룡은 시로 정서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깊이 전하면서, 사회적 응전을 위한 가족의 내적 역량을 키워가고 있었던 것이다.

69) 金聘壽, <次長兒(附原韻)>, 『西溪集』 卷1.

70) 金聘壽, <次長兒>, 『西溪集』 卷1.

71) 이들 작품에 대해서는 金廷龍·金廷堅, 『月潭菊園兩先生聯芳逸稿』 卷1. 참조.

이상에서 우리는 김담수 문학에 나타난 가족 사랑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고찰해 보았다. 김담수의 가족 사랑은 修齊治平의 유가적 논리체계 속에 존재하고, 전쟁으로 인한 고향 상실의 비애를 극대화하고 있었다. 효도와 자애를 핵심으로 하는 가족 사랑의 선순환 구조나 문학을 통한 가족 사이의 정서적 교감도 험난한 사회를 극복하는 내적인 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김담수 문학에 나타난 가족 사랑은 전쟁의 비극을 극복하는 핵심 에너지였던 것이다.

V. 맺음말

본고는 김담수의 문학을 중심으로 그가 ‘가족’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김담수 문학의 주요 창작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전쟁으로 인한 고향 상실에 대하여 먼저 다루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김담수는 가솔을 이끌고 가야산으로 피란을 하였고, 정유재란 이후에는 안동과 상주 등지를 떠돌게 된다. 만년의 경우이긴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그의 기려의식이 문학 전반을 장악하게 된다. 김담수의 가족 사랑과 귀향의지는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 산출된 것이다.

가족을 향한 김담수의 마음은 크게 넷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효심, 사향과 사모 정서의 결합, 장자에 대한 각별한 부정, 여러 아들에 대한 정서적 교감과 당부가 그것이다. 김담수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왜란을 당하게 되는데, 가야산과 안동과 상주 등지를 떠돌며 가족을 재발견하게 된다. 전쟁의 와중에 형제들을 잃고, 어머니에 대한 효도만큼이나 장자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정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이러한 부정은 물론 여타의 자식들에게도 이어졌으며, 그는 이들에게 수양과 함께 공명 이루기를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유교적 세계관에서 ‘家-國-天下’는 근본적으로 상통한다. 이 때문에 김담수 문학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를 따져보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스스로 만아들 정룡에게 고을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기라 하였고, 그의 작품에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자식에 대한 애가 선순환구조로 나타난다. 차운시를 주고받으며 자식들과 문학작정서적 교감을 이룩해 나가기도 한다. 우리는 여기서 가정에서의 孝悌가 仁의 사회적 확산이며, 또한 가족 사랑이 험난한 사회를 극복해나가는 내적 에너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그의 가족 사랑은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가족주의는 가족집단의 결속력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오직 가족끼리만 협력하는 배타성과 이기성이 나타나 사회에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김담수의 효심을 바탕으로 한 장자 중심의 가족관 역시 이러한 측면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담수 문학에 나타난 가족주의는 전쟁의 와중에서 특별히 발생한 것으로, 산성의 구축 등 구체적인 실무와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장자의 직무를 독려한 것은 치도와 결부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그의 가족주의가 공동체적 질서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김담수의 문학은 성리학적 사변성이나 낭만적 격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남아 있는 그의 작품 수가 그리 많지 않고, 남아 있는 작품도 대부분이 만년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작품 세계 전반을 관통하는 것은 인간을 긍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고자 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의 문학은 한숨과 비탄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다.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근심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아나서는 憂中樂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김담수의 문학 연구는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

가족의 형태는 변화하고 있다. 과거 대가족 중심의 사회는 근대 이후에는 소가족 내지 핵가족 중심의 사회로 이동하였고, 혈연이나 혼인의 방식을 취

하지 않는 가족도 존재하게 되었다. 마침내 오늘날은 1인 가구가 늘면서 가족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싱글가족’이라는 용어까지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김담수가 전쟁을 통해 가족을 재발견하고, 이를 문학적인 어법으로 형상했던 일련의 노력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또한 새롭게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유교적 측면에서 자아는 언제나 공동체와 함께 한다. 이를 관계론적 자아라 해도 좋을 것이다. 아버지의 아들이자 자식의 아버지이며, 아내의 남편이며 동생의 형이라는 어떤 관계성 속에서 ‘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담수의 문학에는 위로의 효도와 아래로의 자애가 매우 적극적으로 나타나며, 문학을 통한 자식들과의 정서적 교감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김담수가 문학을 통해 추구한 가족 사랑은 공동체적 질서와 맞물려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17년 8월 3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9월 1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論語』

金鵬壽, 『西溪先生逸稿』

李象靖, 『大山集』

鄭 述, 『寒岡續集』

曹挺立, 『梧溪集』

신수진,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8.

이영찬, 『유교사회학의 패러다임과 사회이론』, 예문서원, 2008.

정우락, 「서계 김담수의 전쟁체험과 그 문학적 대응」, 『영남학』 10, 경북대 영남
문화연구원, 2006. 373-412쪽.

정우락, 「조선중기 강안지역의 문학활동과 그 성격-낙동강 중류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시론-」, 『한국학논집』 40,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0.
203-257쪽.

정우락, 「강안학과 고령 유학에 대한 시론」, 『퇴계학과 한국문화』 43, 경북대 퇴
계연구소, 2008. 39-94쪽.

정우락, 「조선시대 "문화공간-영남"에 대한 한문학적 독해」, 『어문론총』 57, 한
국문학언어학회, 2012. 323-354쪽.

Abstract

"Family" and Its Meanings in the Literature of Seogye Kim Dam-Su

Jeong, Woo-rak

This paper presents a focused investigation into Kim Dam-su's ideas about "family" and its meanings in his literature. After Imjinwaeran broke out, he led his family and evacuated into Mt. Gaya. After Jeongyujaeran broke out, he and his family wandered around Andong and Sangju. His love for his family and determination to return to home was created in the background. His heart for his family can be understood in four aspects: his earnest filial love for his mother, the combination of his longing for his home and his mother, his particular fatherly love for his eldest son, and his emotional communion and request for his sons.

In the Confucian view of the world, "family-state-Heaven" are interconnected fundamentally, which is why the meanings of family are directly connected to social issues in Kim's literature, in which he told his eldest son Jeongryong that Sugi was the most important in ruling a village and introduced a virtuous cycle structure between children's filial duty for their parents and parents' affection for their children. Exchanging rhyme-borrowing poems with his children, he formed literary and emotional communion with them, which indicates that filial piety and brotherly love at home can lead to the social spread of

benevolence and that love for his family became his internal energy to overcome the rough society.

key words : Seogye Kim Dam-su, family, Imjinwaeran, war experience, determination to return to home, Confucian view of the world, filial duty, affection, virtuous cycle structure

